

“다시 출발을 . . . ”

유학까지 하고 오신 저명한 연주가. 그래서 그는 당연히 대학강단에 섰고 교수님이시고 예술가이십니다.

어느날 저녁, 교수님은 가족과 함께 텔리비죤을 보시는데 그만 예능계 입시 부정으로 동료교수님의 잡혀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슬그머니 일어나 방을 나갔고, 딸도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안에 남아있는 교수님과 사모님.

두사람은 얼굴을 마주볼뿐 아무말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광경이 다른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집의 아버지는 국민의 대표였고 또다른 한가정의 아버지는 재벌이였고 또다른 가정의 아버지는 고급공무원이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아들이, 국회의원의 딸이, 재벌과 고급공무원의 아들 딸이 방을 나가듯 국민들은 이땅을 나갈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땅은, 이나라는 내 나라며 내 조국이기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가 비록 데프라환자라 할지라도 버릴수가 없는게 자식입니다. 내 조국이 아무리 중병이 들었어도 버릴수 없는것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역장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을 산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방송작가는 극중 주인공의 입을 빌려서 말합니다. “민나 도로보데쓰” 입에 담기 쉬운 일본말이지만 모두가 도둑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니다 하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수가 없어서 걸려들었다고 한탄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절망적입니다.

왜들 그렇게 뻔뻔스러워졌는지요. 왜 양심들을 내 팽개쳐 버렸는지요. 외눈박이 세상에서 두눈박이가 행세를 못하듯이 모두 양심을 버린 이땅에서 양심을 지니고 있으면 행세를 못할까봐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어찌자는 겁니까. 다른것 다 제쳐두고 우리들의 사진을 남겨주겠습니까. 수갑차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애비는 그래도 깨끗했느니라 하고 유언을 남기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을 합시다. 혀를 깨물고 시작을 합시다. 자식들과 마음놓고 뉴스를 보는 아버지가 되고 자식들 앞에서 큰소리 땅땅치는 아버지가 되는것도 기분좋은 일이 아닙니까.

1991년 월 일

노무현 후원회 대표이기명

32078